북스

Books

학자가 본 관료세계

김광웅 '통의동 일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 재직 시절 있었던 일들을 세세히 기록한 '통의동 일기'를 출간했다. 제목은 중앙인사위가 세들어 있던 통의동 건물의 행정구역 이름에서 땄다.

책에는 학자인 저자가 직접 체험해본 관료세계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그 사람 신경 좀 써줘"라는 인사청탁부터 정부 인사들과의 갈등, 관료 사회의 높은 벽, 언론과의 애증 관계에 이르기까지 행정학 교과서에서는 쓸 수 없는 실제 정부와 관료사회의 내부 모습을 현장에서 보듯 세밀하게 그렸냈다.

〈생각의나무·2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낯선 땅에서 또 다른 나를 보다

야생사과

나희덕 지음

"내 시세계를 좋아해 주는 독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배반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모험을 감행했어요".

'사라진 손바닥' 이후 5년 만에 시집 '야생사과'를 들고온 나희덕(44·조선대 문창과 교수·사진) 시인의 목소리엔 비장함이 느껴졌다.

그가 변신했다. 그래서일까. 그의 이번 시집에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낯섦이 엿보인다. 서정시의 익숙한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를 쓰려는 시인의 지난한 고민, 조금씩 그 해답에 이르는 과정 등을 작품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그의 이번 시집은 2007년 가을 미국 아이오와대의 국제창작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일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생활을 해봤다. 일상에서 벗어나 삶을 관조하면서 자신을 치유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고 예술, 문학적 환경의 변화를 보고 들으면서 새로운 글쓰기 양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생업의 고통에 내면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고 상상력도 바닥난 상태였는데 낯선 땅에서의 색다른 경험으로 생기를 찾았고 희망을 보았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평화롭고 달게 느껴졌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붉은 절벽으로 돌아가며/곁에 선 나무에서 야생사과를 따주었다//나는 개미들을 훑어내고 한입 베어물었다/달고 시고 쓰디 쓴 야생사과를//그들이 사라진 수평선,/내 등 뒤에 서 있는 내가 보였다//바람소리를 들었을 뿐인데/그들이 건네준 야생사과를 베어물었을 뿐인데"('야생사과' 중)

표제작 '야생사과'는 그때의 경험이 녹아난 작품이다. 야생사과를 먹는 낯선 경험이 존재의 갱신과 신생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을 모호하면서도 신비롭게 그려냈다.

내 등 뒤에 서 있는 내가 보였다 그들이 준 야생사과를 베어물었을 뿐인데

"이전에 삶이란 과거가 만들어낸, 견뎌야 할 어떤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가 미래를 만들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는 들뢰즈의 말처럼, 기억의 되새김질보다는 생성의 순간에 몸을 맡기고 싶다. 오늘도 봄그늘에 앉아 기다린다, 또 다른 나를." ('시인의 말' 중)

"예전에는 시를 쓸 때 경험을 하고, 경험이 충분히 자기화하길 기다렸다가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이제는 기억을 되새김질하기보다는 새롭고 낯선 것들을 만나고 발견해서 쓰고 싶어요."

올해로 등단 20년째를 맞은 그는 "이제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 독자나 평단의 요구 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집은 기억과 경험의 경계마저 뛰어넘어 시적 모험을 감행하려는 그의 또 다른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창비·7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희덕 시인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사라진 손바닥', 시론집 '보라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산문집 '반통의 물' 등을 냈다. 김수영 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산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

신경림 지음

시인이 들려주는 60~70년대 문단 풍경

'농무'의 시인 신경림(74)이 일제강점기 말기와 해방 전후에 보낸 유년시절과 1960~1970년대 우리 문단 풍경을 담은 에세이집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를 출간했다.

시인이 2000년대 초반 교육전문지와 일간지에 연재했던 에세이를 묶은 이번 책은 시인이 초등학생 때 이야기를 담은 1부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문단 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2부 '삶의 뒤안길에서'로 구성돼 있다.

시인의 표현대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시절의 이야기인 1부에서는 '허약했지만 허풍이 셌던' 어린 시절의 신경림을 만날 수 있다.

무직자인 외삼촌이 판사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다가 따돌림을 당한 일,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용돈을 슬쩍해 사탕과자를 사먹던 이야기, 백일장에서 떼논 당상으로 알고 있다가 다른 친구가 상을 타게 된 것을 뒤늦게 알고 하늘이 노래진 일 등 개구쟁이 같고 천진난만한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다.

2부에는 서정주, 천상병, 조태일, 이문구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옛 문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따뜻하게 그려진다.

동가숙서가식하면서도 지칠 줄 몰라 '속이 무쇠로 된 사람'이라 불렸던 천상병 시인이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석달간 갇혀 있다 풀려나온 뒤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했다는 가슴아픈 이야기에서는 시절의 엄혹함이 느껴진다.

이외에도 겉모습과 달리 정이 많았던 조태일 시인, 계파도 무엇도 없었던 문단의 마당발 이문구 작가 등 한시대를 풍미했던 문인들의 이야기가 풍속화처럼 펼쳐진다.

책 제목은 신 시인의 시 '파장'의 첫 행에서 따왔다.

"역시 내 이야기는 시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책으로 내놓으려니 좀 쑥스럽기도 하다"는 시인은 "독자들이 웃고 읽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문학의 문학·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예술가를 말하다=미국의 큐레이터 캐서린 쿠가 현장에서 만난 예술가 16명의 뒷이야기를 소개한다. 저자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 화가 마크 로스코, 조각가 브랑쿠시 등과 교분을 나눴다. 〈아트북스·1만5천원〉

▲자전거와 함께 살기='헌책방 마니아'로 알려진 저자가 아동문학가 고(故) 이오덕 선생의 유고를 정리하기 위해 충북 충주에 내려가 살면서 서울까지 자전거로 오가던 1년 동안을 일기식으로 기록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겪었던 일상의 소박한 이야기들과 함께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자동차 중심 문화에 대한 비판도 들어 있다. 〈달팽이·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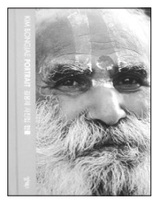
▲죽도록 책만 읽는='각주와 이크의 책읽기', '어느 게으름뱅이의 책읽기' 등 독서일기를 펴낸 도서평론가 이권우의 새로운 서평집이다. '문학의 숲을 걷다', '참사람의 향기에 취하다' 등 4개의 섹션으로 나눠 김애란의 '침이 고인다', 버락 오바마의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찰스 다윈의 '나의 삶은 서서히 진화해 왔다' 등 80여권의 책을 소개했다. 〈연암서가·1만2천원〉

▲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일궈 온 박성원씨의 네 번째 소설집. '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1, 2' '캠핑카를 타고 울란바토르까지 1, 2'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4, 7' 등 여섯 편의 단편을 묶었다. 표제작은 '도시는…'은 아내를 여읜 남자와 아버지를 찾는 아이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문학동네·1만원〉

▲틱낫한 엄마=세계적인 평화운동가 틱낫한 스님의 엄마에 대한 경험담. 엄마와 우리가 하나인 이유, 영원히 변치 않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는 법, 엄마에 대한 화와 실망을 사랑으로 바꾸는 법, 엄마를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등을 잔잔한 어조로 전하고 있다. 〈아름다운인연·9천800원〉

▲숲에 빠져 미국을 누비다='신갈나무 투쟁기' '숲의 생활사' 등을 쓴 차윤정씨의 미국 숲 답사기. 미국 오리건주의 코밸리스를 시작으로 미국 서부의 7개 주요 생태 거점을 돌며 만난 미국 나무와 숲, 지역에 얽힌 역사와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숲 생태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낸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천800원〉

▲폭군의 몰락=강력한 힘은 어리석은 왕의 손에 들어갈 때 나라를 망치는 칼날이 된다. 한국 역사 속 대표적인 '폭군' 6명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한다. 고구려 모본왕과 백제 개로왕, 고려 의종과 공민왕, 조선 연산군과 광해군 등 '폭군'으로 평가받는 군주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청아출판사·1만3천원〉



▲김봉제 사진집 인물·일상과 풍경=30여 년 열정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김봉제씨의 사진집. 15만 컷의 사진 중 500여컷을 촬영 일시와 장소 등을 밝혀 실었다. 6개월간 슬라이드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 인물, 풍경 두 테마로 나눠 엮었다. 〈열림원·2만2천원〉

(주)국민법률경매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법원 부동산 경매정보

공인중개사 경매분석사 :김행숙 ☎ 062)351-8240 H.P 010-7203-1100

아파트

구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신창동	해광샴그릴라	112	1억3천5백	9천4백
	비아동	하남호반	79	6천6백	4천6백
	운남동	주공4단지	85	6천3백	4천4백
	소촌동	라인	79	6천	4천2백
	월계동	첨단동부	112	1억2천8백	8천9백
		첨단쌍용	95	9천8백	6천8백
	송정동	라인2차	99	8천	5천6백
	도산동	우미	79	5천9백	4천1백
남구	주월동	금영푸르미	105	1억2천8백	8천9백
		영무에다움	128	1억5천	1억5백
	봉선동	금호타운	105	1억3천	7천2백
		라인	105	1억1천	7천7백
		라인하이츠	85	7천	4천9백
		명지	89	6천	4천2백
	월산동	삼진하트빌	112	1억1천	7천7백
동구	학동	대주피오레힐즈		4억5천	3억1천5백
		신영투체클레식		3억7천	2억5천9백
	지산동	삼성	105	9천4백	6천5백
	운림동	무등파크	112	9천5백	6천6백
	용산동	호반	79	5천5백	3천8백
	산수동	광명	165	1억6천5백	1억1천5백
서구	금호동	르렌시아	105	2억	1억4천
		중흥	75	9천3백	6천5백
		라인	122	1억2천8백	8천4백
		금호베스트빌	125	1억9천	1억3천3백
	풍암동	대주파크빌	151	1억8천5백	1억2천9백
		금호타운	128	1억6천	1억1천2백
		미지부영	105	1억2천	8천4백
	치평동	라인대주	82	9천3백	6천5백
		중흥	128	1억9천	1억3천3백
		금호대우	79	8천5백	5천9백
	화정동	아편한세상	221	4억	2억8천
		현대	99	1억	7천
		우성	69	5천2백	3천6백
	쌍촌동	용산그린	108	9천	6천3백
목포	상동	2단지	58	3천4백	2천3백
	옥암동	푸르지오	112	1억5천	1억5백
화순	화순읍	금호타운	89	9천6백	6천7백
		대광	62	4천	2천8백

주택/농가주택/전원주택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송정동	146/106	6천8백	4천8백
	비아동	643/341	2억3천2백	1억6천2백
	소촌동	800/203	2억1천4백	1억5천
남구	월산동	146/147	9천7백	6천8백
	주월동	155/170	8천5백	6천
		130/119	8천	5천6백
북구	누문동	221/216	2억1천2백	1억1천8백
	용봉동	128/154	8천7백	3천9백
	두암동	139/98	7천9백	5천5백
		514/334	3억4천5백	1억9천3백
		151/113	1억1천8백	6천6백
	풍향동	127/78	6천1백	3천4백
	삼각동	413/182	1억6천5백	1억1천5백
서구	화정동	143/157	1억2천1백	8천5백
	서창동	245/78	4천	2천8백
	농성동	197/156	1억1천8백	8천3백
		131/137	1억7백	4천7백
화순군	동복면	628/96	4천1백	1천4백
	도곡면	317/115	1천2백	1천2백
	화순읍	168/50	2천3백	1천6백
	화순읍	186/95	7천5백	5천3백
	이양면	903/111	1천9백	1천3백
담양군	고서면	420/147	7천9백	5천5백
함평군	나산면	529/124	5천6백	3천9백
		1392/316	1억4천6백	6천5백
	학교면	660/183	5천1백	1천4백
무안군	삼향면	552/168	5천9백	5천9백
	청계면	819/119	6천2백	
영암군	시종면	1115/128	3천2백	2천2백
	금정면	1438/112	5천8백	
영광군	낙월면	397/108	5천5백	3천
장성군	황룡면	1153/133	6천8백	4천7백
순천시	서면	661/73	6천5백	3천6백
보성군	회천면	801/119	2천2백	1천2백
	보성군	265/204	6천1백	6천1백
해남군	송지면	800/151	2억1백	9천1백
		2570/333	1억7천6백	
	문내면	600/312	9천2백	4천1백

근린주택/근린상가/근린시설

지역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쌍암동	455/1657	19억5500	8억7천5백
	월곡동	480/1036	9억1천4백	5억1천2백
	신기동	317/493	5억1천9백	3억6천3백
	월계동	636/1134	9억7천	9억7천
	송정동	195/782	7억8천7백	4억4천
동구	대인동	1092/2642	27억5백	27억5백
	산수동	222/153	3억3천2백	1억8천6백
	동명동	142/140	1억9천1백	1억3천4백
		412/380	3억8천4백	3억8천4백
		390/853	6억4천1백	6억4천1백
	충장로5가	195/782	7억8천7백	4억4천
	금남로4가	776/3231	31억6200	31억6200
북구	삼각동	664/688	10억7300	7억5천1백
	운암동	2689	20억6천	9억2천2백
	오치동	433/525	4억1천3백	2억3천1백
	오치동	220/370	2억4천7백	2억4천7백
	오치동	891/2877	22억3백	14억1천
	중흥동	252/1043	6억2천3백	2억7천9백
	중흥동	260/558	3억6천2백	2억5천3백
	중흥동	165/610	3억4천	1억9천
	용봉동	598/378	4억3천6백	3억5백
	동림동	300	12억3900	6억9천3백
서구	화정동	239/696	5억3천2백	3억7천2백
		208/576	3억8천4백	1억5천7백
		298/1056	5억8천	4억6백
	풍암동	1781/4422	52억1백	23억3천
		동부상가	1억2천	8천4백
		249/614	5억4천4백	3억8천1백
	치평동	392	18억4800	9억4천6백
	광천동	137/239	1억9천9백	1억9천9백
	양동	221/679	3억6천4백	2억4백
		73/120	7천5백	5천2백
	내방동	547/1113	12억5천	8억7천5백
남구	월산동	541/859	7억1천7백	5억2백
	월산동	243/216	3억5천5백	3억5천5백
	월산동	410/1228	10억8500	3억8천8백
	월산동	348/880	4억6천3백	1억3천2백
	월산동	112/189	1억2백	5천7백

근린주택/근린상가/근린시설

지역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남구	방림동	165/724	3억8천2백	2억6천8백
	봉선동	52	2억8천	8천
	주월동	768/866	7억1백	3억9천2백
		716/2661	28억7700	16억1100
		339/1406	13억1백	7억2천8백
		165/182	1억5천	1억5백
	봉선동	금호상가	4천6백	3천2백
나주시	송월동	204/105	9천2백	4천1백
	노인면	2195/673	5억7천2백	3억2천
		313/244	1억4백	1억4백
장성군	장성읍	160/352	4억1천8백	2억3천4백
목포시	용당동	332/470	4억4천7백	3억1천3백
담양군	월산면	14758/1550	7억3백	4억9천2백
화순군	도곡면	563/254	2억	1억4천

오피스텔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서구	치평동		9천2백	4천1백
		81/13	1억5천5백	6천9백
		56/33	1억5백	5천8백
		38/	7천2백	4천1백
		26/	4천6백	3천2백
남구	월산동	24/	4천7백	2천6백
동구	수기동	119/	1억5천	8천4백
북구	신안동	22/	4천	9백
	북동	26/	4천3백	1천9백
광산구	쌍암동	30/	4천	2천8백

다가구/원룸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월계동	264/266	2억2천6백	1억5천8백
	송정동	423/578	5억1천6백	3억6천1백
남구	방림동	239/514	2억9천4백	2억5백
		301/845	4억9천7백	3억4천8백
	월산동	264/992	7억7천9백	4억3천5백
북구	신안동	322/688	6억8천8백	4억8천2백
		421/634	6억5백	4억2천3백
	누문동	271/551	5억6천7백	3억9천7백
	오치동	180/215	1억6천	1억1천2백
동구	학동	274/489	4억3천2백	3억3백
서구	화정동	303/446	3억5천7백	1억6천

토지

구	소재지	면적(㎡)	지목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송대동	전	298	1천6백	1천1백
	광산동	임야	14460	5천4백	3천7백
	동림동	임야	38578	1억2천3백	5천5백
	도산동	전	14588	20억8600	11억6800
	쌍암동	대	406	4억4천7백	2억5천
	용봉동	답	3000	6천3백	4천4백
	요기동	대	410	2천6백	1천1백
	송치동	답,대	1680	1억8천2백	1억2백
	복룡동	답	2261	1억4천3백	1억4천3백
		전,답	2371	1억5천7백	1억5천7백
		답	1729	7천9백	7천9백
	연산동	잡	1488	8천7백	8천7백
동구	소태동	전	780	1억6천3백	1억1천4백
서구	매월동	임야	754	1억3천9백	9천7백
	미륵동	답	2354	11억2천	7억8천4백
남구	지석동	전	878	1억7백	7천5백
	행암동	전	891	4천6백	4천8백
	주월동	전	1410	4억6천5백	4억6천5백
	주월동	임야	1301	3억3백	3억3백
	주월동	잡	335	1억	1억
장성군	동화면	답	2478	6천1백	4천3백
	삼계면	전	3729	5천	3천5백
	황룡면	답	2794	3천3백	2천3백
		답	6817	7천8백	5천4백
	진원면	답	1052	2천1백	1천4백
나주시	왕곡면	답	3236	3천5백	3천5백
	봉황면	답	1190	1천9백	1천3백
	봉황면	과수원	3006	8천6백	4천8백
	나주시	답	423	9백	
	세지면	전	841	1천3백	9백
		답	2744	2천4백	
		답	2198	1천9백	
	봉황면	답	1195	1천4백	1천
장성군	동화면	답	2478	6천1백	3천4백
	삼계면	답	2056	8천2백	4천6백
	황룡면	답	2794	3천3백	2천3백
		답	6817	7천8백	5천4백
	진원면	답	2623	1억5천4백	1억5천4백
	서삼면	답,임야	14833	2억3백	1억4천2백
	남면	임야(과)	7028	1억4천4백	1억3천4백
목포시	상동	잡	3638	10억9100	7억6천3백
	산정동	대	719	1억7천2백	9천6백
함평군	함평읍	답	1369	1천	
	신광면	전,답	9223	5천3백	3천7백

토지

구	소재지	용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화순군	화순읍	답	550	4천5백	3천1백
	북면	전	902	1억1천7백	8천2백
		전	8898	9억8천2백	6억8천8백
		전	902	1억1천7백	8천2백
	남면	답	1835	5천1백	2천8백
담양군	수북면	답	714	1천6백	
	담양읍	전,답	6402	1억2천1백	8천4백
	월산면	임야	3471	1천	
	남면	답	502	6백	4백
	수북면	전	860	1천3백	1천3백
		답	1470	2천	2천
		전	555	1천8백	1천8백
	고서면	답	1597	2천7백	2천7백
		답	3002	5천1백	5천1백
무안군	망운면	전	15205	10억8400	7억4천5백
	일로읍	전	836	1천4백	1천4백
보성군	보성읍	답	3230	5천4백	5천4백
	득량면	답	3587	3천2백	3천2백
해남군	송지면	답	8000	5천6백	3천9백
	산이면	전	21531	2억5천4백	1억7천8백
	화산면	전,잡	1498	1천7백	4백
영암군	시종면	답,전	3966	4천2백	2천3백
	삼호읍	대	779	2억4천9백	1억1천1백
		답	1833	9천8백	9천8백
나주시	다도면	임야	2884	1천7백	1천7백

공장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오선동	3354/2863	18억4200	
	장덕동	4958/4808	31억8500	16억3천
	비아동	807/696	5억4천2백	3억7천9백
	우산동	509/485	2억4천6백	1억7천2백

농가전원시설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보성군	조성면	2519/763	1억1천	4천9백
화순군	남면	1835/140	5천1백	3천5백
	한천면	4644/1390	2억6천2백	1억4천6백
순천시	주암면	4959/1483	2억2천1백	4천8백
나주시	세지면	2220/853	1억6천	1억1천6백
무안군	청계면	6973/2277	3억2천7백	1억1천7백

경매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부동산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